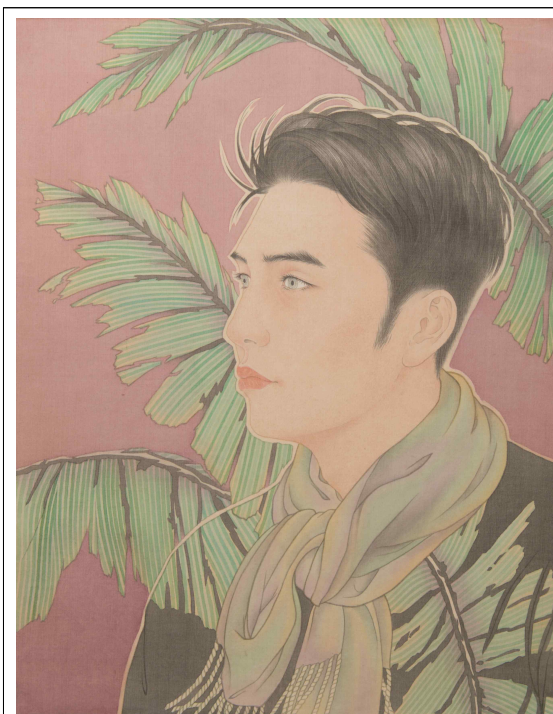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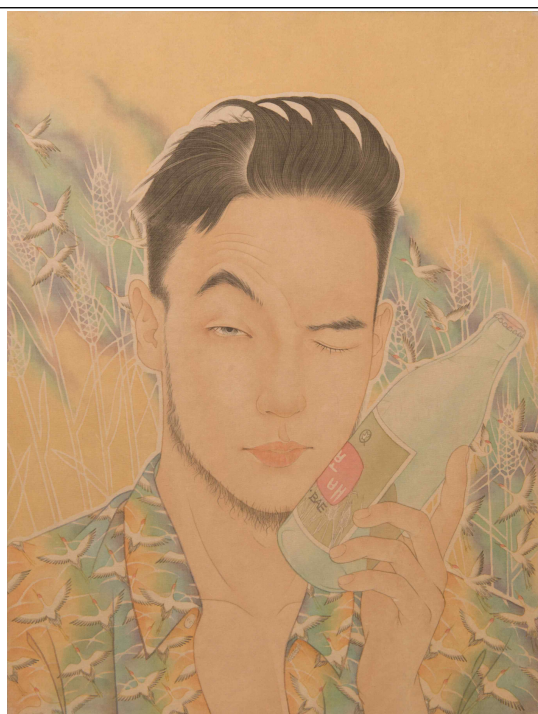


세상을 향한 평등하고 따뜻한 시선 - 박그림 작가



년 먼저 집에 가, 53x41cm, 비단, 담채채색, 2017



박그림, I SLAY, 43x32.5cm, 비단, 담채채색, 2016

정읍에서 태어난 박그림 작가는 정월(井月)이라는 호를 사용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였다. 2012년 서라벌 예술대전에서 특선으로 당선된 것에 이어 2016년에는 동대문 DDP에서 “아시아프” 그룹전에 동참했다. 2015년에는 영덕 옥천사 연화단불화 조성했으며 광양 응신암, 의정부 개성암, 제천 무암사 등의 사찰에서 불화 등을 조성했다.

박그림 작가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기 전에 스승 밑에서 도제식으로 불화를 배웠고, 세월이 쌓인 그림들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런 그림들이 ‘누군가가 만들어서 퍼트린 관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를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박그림 작가의 이번 전시는 2015년부터 그려온 작품들로 구성된다. 그 당시에 작가는 자신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적인 모습에 자기혐오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아닌 타인들의 자기애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속 인물들을 보면서 타인들의 자기애를 탐구했으며 그 중 몇몇을 모델로 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각각의 매력과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을 보여준 모델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까지 당당하게 드러내어 매력으로 느껴지게 한다. 그들을 표현하기 위해 재료적으로는 비단을 사용하고 기법적으로는 색을 계속 올려야하는 담채기법을 사용하였다.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박그림 작가는 그 방법 중 하나로 배경의 패턴들과 모델의 표정을 잘 융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모델이 입과

있는 옷과 배경의 패턴들이 하나인 듯 표현되어 마치 몸이 투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성소수자들을 배경과 융합되게 표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며, 모델과 배경의 사이에 선을 그어 나눈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작품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늘 융합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작가의 탁월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p>꽃이라도 사오는 건데, 45.5x53cm, 비단 담채채색, 2015</p>	<p>데이트하기로 했어, 47x33cm, 비단 담채채색, 2015</p>

아름다움은 한 가지가 아니며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아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학습되어진 고정관념들로만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지 말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鳧脛雖短 續之則憂, 鶴脛雖長 斷之則悲)”는 장자(莊子)의 말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허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늘 두려운 일이다. 자기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던 그림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박그림 작가의 전시를 보는 관객들이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